일주문



'우리문화 자강운동' 행사

현성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스님은 27일 제주도 한라체육관에서 '우리문화 자강운동'을 주제로 한 행사를 가졌다.



'문예사조' 통해 시인 등단

혜종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은 월간 <문예사조> 11월호를 통해 시 '그리움'으로 등단했다.



겨울불교학교 지도자 강좌

운광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은 12월1일 오후 3시 잠실 불광사에서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강습회를 연다.



베트남 관음사 조실 추대

정각 부산 미룡사 주지는 25일 베트남 한국불교 관음사 조실에 추대됐다. 한편 이날 관음사 상량식도 봉행했다.



'한라불교' 후원의 밤 행사

조맹수 한라불교신문 사장은 23일 제주 그랜드 호텔에서 '한라불교신문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다.

도선사 신임주지 혜자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3일 서울 도선사 신임주지에 혜자스님(청담학원 이사)을 임명했다.

혜자스님은 1967년 도선사에서 청담스님을 은사로 출가 76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도선사 부주지, 총무원 문화부장, 사서실장등을 역임했다.

본보 '종립학교를…' 기획상

제5회 한국불교기자상



◇천미희 기자



◇김두식 기자

한국불교기자협회는 제5회 한국불교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에 '종립학교를 가다'를 쓴 현대불교 천미희 김주일 김두식 기자, 취재보도 부문에 '김태복 사건과 명예회복을 위한 후원운동'을 쓴 법보신문 김형규 남배현 기자를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은 12월 3일 오후 7시 동국대 상록원 3층에서 '불교언론인의 밤' 행사와 함께 열린다. (02)734-0777.

포교대상에 지관 스님

조계종 선정… 공로상 범하 스님 · 이원주 씨



◇지관 스님



◇범하 스님



◇이원주 씨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도영)은 16일 포교대상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3회 포교대상 대상(종정상) 수상자로 불교연구를 통해 30여년간 불교학 발전과 후학양성에 기여해 온 지관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을 선정했다. 또 문화 · 어린이 · 청소년 · 군포교 등 8개 분야에 걸쳐 공로상과 원력상 수상자도 발표했다.

지관 스님은 불교학 연구에 매진하면서 불교대사전인 <가산불교대사림>과 <한국고승비문총집> <계율론> <한국불교 소의경전 연구> 등의 편찬을 통해 불교중흥의 근간을 마련했으며, 91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해 불교학 연구를 위한 후학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포교대상 공로상(총무원장상)에는 범하스님(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문화포교 부문), 이원주씨(명성여고 교장, 청소년포교 부문)가 각각 선정됐다. 범하스님은 전국 사찰성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교문화 포교에 앞장섰으며, 이원주씨는 중 · 고등부 지도법사로서 청소년 포교에 매진해 왔다.

원력상 수상자는 동범스님(충주 대원사 주지, 경찰포교 부문), 이춘성(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사무총장, 어린이포교 부문), 장지영(조계사 신도, 일반포교 부문), 김진수(익산 포교사회 회장, 군포교), 심재환(수원교도소 교도관, 교정교화 부문), 박창식(구로승무사무소 기관사, 직장직능 부문), 전재성(한국 빠알리성전협회 대표, 출판 부문), 불교레크리에이션협의회(기타 부문) 등이다. 시상식은 12월 8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한명우 기자

"고속도로 알뜰 설계 · 관리 6천억원 절약했어요"

대통령 표창 신지식인 김용식 씨



"나랏돈을 부처님의 삼보정재라 생각하고 아꼈습니다" 18일 제2건국위원회로부터 신지식인 모범사례 수상자로 선정된 김용식(48 · 한국도로공사)씨는 "맡은 일을 성심성의껏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속도로 설계, 시공과 유지 관리분야에서 6천억원대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는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대통령표창까지 받게 됐다. 북한산 심곡암(주지 원경)에서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식씨는 "부처님의 참된 불자가 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능인선원 불교대학에 등록해 불교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새로운 신행문화 정립"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재선 백창기 씨



"지금까지 종단과 신도대중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신도대중과 하나가 되는 중앙신도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17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2대에 이어 제3대 회장에 재선출된 백창기 회장은 중앙신도회를 명실상부한 신도대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의원 총회에서 이미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신행혁신위원회와 정보화위원회를 신설해 신행문화를 혁신하고 불자 네티즌을 온라인 상에서 공동체로 묶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신도회가 신도대중에게 다가서고, 또 신도대중이 중앙신도회를 통해 조계종 신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994년 개혁종단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제1기 중앙신도회는 종단의 정치상황에 휩쓸려 회장이 사퇴하는 등 파행으로 마감됐었다. 그런 전철을 되밟지 않으려는 노력 때문이었는지, 백창기 현 회장이 책임을 맡아온 2기 중앙신도회 집행부는 신도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신도회 조직을 체계화하고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대의원들의 열의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시 단위의 15개 기초지역 신도회를 결성하는 등 조직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백 회장은 각급 단위의 신도지도자들과 만나 중앙신도회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는 한편, 임원 워크숍을 개최해 현안을 숙의하고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등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백창기 회장 취임식은 12월 3일 오후 5시 세검정 하림각에서 열린다.

백창기 회장은 55년 전북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76년 쌍계사에서 신행활동을 시작한 이래, 99년 중앙신도회 제2대 회장에 당선됐으며, 2000년에는 달라이 라마 방한을 위한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와 지리산 살리기 댐백지화추진 범불교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과 비폭력문화정착을 위한 추진위원회 공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무너진 신도회 조직 재건"

제2대 서울광역신도회장 김진관 씨



"신도회 방향성 정립과 조직활성화에 매진하여, 넉달간 공백기에 있던 서울광역신도회를 신바람 나는 불자들의 모임으로 만들겠습니다."

1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서울광역신도회 임시총회에서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진관씨(52 · 소주통상 대표이사)는 2년 임기동안 신도회 조직재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광역신도회는 지난 7월에 종단의 지원 부족과 단위 사찰의 참여 저조로 회장 및 운영위원 전원이 일괄사퇴하면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었다.

김회장은 "그동안 부진했던 활동에 대해 문제점부터 파악하겠다"며 "서울지역 1백 40여 곳의 사찰중 현재 30 여개 사찰에 불과한 신도회 조직을 배가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도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찰 주지스님들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관 회장은 7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조계종 포교사단 특별위원을 맡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김철우 기자



정대 스님 영화 '달마야 놀자' 관람

"선의 경지를 여러가지 이미지로 표현하려한 노력이 돋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오른쪽에서 세번째)은 부 · 국장 스님들 씨네월드 이준익 대표, 배우 박신양 씨 등과 함께 22일 서울극장에서 '달마야 놀자'를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달마야 놀자'는 23일 현재 200만명이 관람하는 대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불교TV 봉천동 사옥 기공식

불교TV는 21일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현장에서 사옥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 스님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성우 스님은 "오랜 숙원이던 새 사옥 마련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완공되면 영상포교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로사 천화계단 보살계 법회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19~21일 제38회 천화계단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했다. 전계대화상 지관 스님, 갈마아사리 법회 스님, 교수아사리 혜총 스님으로 진행된 법회에서 4백 여 불자들이 계의 참뜻을 새기고 받아 지녔다. 지관 스님은 "모든 수계 불자들이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밝히는 정진과 기도로 수계의 근본의 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7회 불교인권상 시상식

불교인권위원회는 21일 길상사 인권법당에서 제7회 불교인권상 시상식 및 창립 1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공동대표 진관 · 지원 스님을 비롯 수덕사 주지 법장 스님, 범민련 이종련 의장, 전국연합 오종련 상임의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범민련 박정숙 고문과 김선분 서울시연합부의장이 제7회 불교인권상을 수상했다.